

저는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자로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 1. 응시동기

동료직원들이 29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는 걸 확인하고, 도전해볼까라고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시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박문각에서 ALL PASS강의가 생겼다고 하여, 2월 말에 부랴부랴 학원등록을 하고, 3월부터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저의 수험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 2. 제30회 법무사 시험 도전기

민소법예비순환을 시작하여 2023. 11.부터 학원수업은 시작되었으나, 저는 2024. 3.부터 학원수업을 시작한 관계로 강의 진도에서 한두 달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2순환을 6월쯤 시작하였으나, 저는 8월에 2순환 모의고사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그때 좌절을 하였습니다. 2순환 모의고사 수업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8월이면 시험에 가까운 날짜이고, 남들은 이때부터 정리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시험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학원수업은 끝까지 들어보자는 마음을 먹었으나, 개인 사정과 업무 등의 핑계를 대며, 올 해는 안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남은 강의만을 이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 11. 시험 전날 금요일에 저녁 6시를 훌쩍넘겨 야근을 하면서 시험장에 갈지를 고민하다가, 불합격을 확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시험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 3. 제31회 법무사 시험 도전기

시험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으면서도, 다시 도전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수없이 고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강의를 1년간 들었는데도, 저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얇은 층으로 쌓여있었어요.

모두가 30회 시험을 치르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저는 2024. 11.에 다시 박문각 수업을 등록하고 예비순환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 (1)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양이 너무 많아서 100강의가 넘는 강의를 들으면 전체적인 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해 힘들었는데, 이혁준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요약정리 노트 (170페이지 분량)를 저의 기본노트로 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예비순환 때부터 요약정리노트를 함께 보면서, 한 강의가 끝나고 나면 공부한 부분을 체크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체 범위 중에서 이 부분을 공부 하였구나 라고 요약정리노트로 갈무리하고, 민사소송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전체 줄기를 파악하고 나니, 중간 중간 살을 붙이게 되고, 두문자도 외우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민사재판참여도 하게 되므로, 민소법 용어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이 되었습니다. 업무상 용어가 수업에 나오니 집중하지 않게 되고, 나는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얀 종이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교수님은 모르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모르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모르는 것을 알기 위

해 노력했습니다. 교수님이 특정부분에서 하시는 농담도 다 외울 정도로 귀에 꽂고 다니며 강의의를 들었습니다. 심장 같은 66조를 들을 때는 처음에는 심장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듣다 보니 66조가 들리고,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은 66조라고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민소법을 가장 많이 적었는데, 민소법은 52.75입니다.

## (2)민사소송서류

PPT자료는 출력하지 않고, 강의는 순차적으로 모두 들었습니다. 소장 작성 방법은 강의에서 배울 수 있으나, 소장을 작성하는 지식은 오롯이 개인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소장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판례도 정리해 주시고, 소장 기본 구조를 가르쳐주셔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장 문제는 단 한 문제이고, 그 단 한문제의 관련 판례를 아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나게 됩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판례를 많이 찾아보는 등, 민법 지식이 있으신 직원들은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는 판례여서 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였고, 제 시험당락은 소장점수에서 결정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점수는 8.75입니다.

## (3)부동산등기법

모든 강사님들을 존경하지만, 김기찬 법무사님을 특별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업무를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이사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도 작성할 줄 몰라서 등기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고는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등기법을 배우려니 너무 힘들고, 등기법 양도 많고, 흐름을 잡을 수 없는 과목이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김기찬 법무사님의 입문강의부터 모든 강의를 무한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무료강의도 다 찾아서 들었습니다.

등기법도 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별도의 요점정리노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2순환, 3순환 모의고사 답안지를 목차 순서대로 정리하고, 모의고사에서 빠진 목차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여 하나의 요점정리노트를 만들었습니다.(나중에는 요점정리노트가 책보다 더 두꺼워지기는 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 내용은 파악이 되는데 막상 답안을 쓰려면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법무사님은 답안지 자체를 한 장의 사진이나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고, 저도 답안지 모양 자체를 외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예상문제로 많이 다루어 주셨는데, 관할특례 문제가 나왔을 때 예상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막상 답을 쓸 수가 없어 당황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법무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일단 조문부터 찾아서 적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조문을 찾아서 적고나니, 수업시간의 예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예와 적용되지 않는 예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법무사님이 수업시간에 했던 말씀대로 계속 연상해서 생각하기와 일단 조문 찾기를 틈틈이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는 44점입니다.

## (4)등기신청서류

김기찬 법무사님의 해안이 드러난 과목이었으며, 단연 효자과목이었습니다. 아마 박문각 수업과정을 들었던 수험생이라면 모두들 시험 치면서 감탄을 하였을 것입니다. 모의고사 때 풀

있던 문제 중 하나가 출제되었고, 쟁점이 한두 개가 빠져서 모의고사 때보다 더 쉽게 풀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쉬워서 무슨 함정이 있는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김기찬 법무사님은 등기신청서 그림을 수십 번 그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도 귀찮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계속 그리고 똑같은 조문을 계속 말하면서 수험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등기신청서 과목에는 복습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등기신청서를 일도 모르시는 분들도 김기찬 법무사님의 1,2,3순환 강의를 순차적으로 들으시면 등기신청서 작성문제는 쉽게 풀어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점수는 27.25점입니다.

#### 4. 마치며

먼저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을 치르기에 나는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 우수한 사람들은 빨리 합격하면 되는 것이고, 평범하거나 부족한 사람은 오래 공부해서 천천히 합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절대시간이 흐른 후에는 내공이 쌓여있는 스스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 없는 과목에서 실점하더라도 자신 있는 과목에서 완벽하게 답안을 작성하여 합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시어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